

행성에 존재하는 때가 나라와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는 문제이다. 자주권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행전 종식 후 미국은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며 세계 도처에서 침략과 간섭, 략탈책동을 더욱 공연히, 악랄하게 벌리였다. 이로 인해 힘이 약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이 미군의 침공과 지배 밑에 놓이고 민족간, 종족간 분쟁이 더욱 심화되어 어느 때나 편안한 날이 없고 전쟁의 불구름이 한시적으로 떠 있는 행성이다.

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중시되고 힘이 없으면 정의도 부정으로 되고 짓밟혀야 하는 오늘의 세계에서 세계를 지키는 것은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는 길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옮은 대답을 준것이 선군조선의 현실이다.

위대한 민족의 영수, 천출명장을 모실 때 민족은 비로소 당당히 가슴펴고 세상에 존엄높이 살 수 있다.

정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 천리해안의 군사적 예지와 탁월한 지략을 지니신 우리 민족이 낳은 또 한분의 천출명장이시다.

세계 군력사에는 자기 나라 군대와 인민은 물론 다른 나라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이를 날린 군령수, 최고사령관들이 적지 않지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처럼 비범한 천품과 무비의 담력, 뛰어난 지략과 령군술로 세계인의 경탄과 이목을 집중시킨 위인은 있어본적이 없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커다란 상실의 아픔을 겪은 공화국을 감히 어찌보려고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강행 하던 2012년 3월 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대열점지대에 위치한 판문점을 찾으셨었다.

평화적인 국경선도 아니고 정전 상태로 하여 교전상황이 직

천출명장을 높이 모신 민족의 행운

접 대치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곳으로 한 나라의 최고령도자께서 직접 나가신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 했던 《특대사건》이었다. 더우기 그이께서 한낮에 적초소까지의 거리가 불과 수십m밖에 안되는 최전방의 판문각로대에 까지 오르시여 쟁안경으로 적진을 바라보신 사실 앞에 적대세력들은 그만 혼비산하였다. 당시 남조선의 한 군사전문가는 인터네트신문 《자주민보》에 게재한 자기의 글에서 《시찰이 어느날 진행됐던지 이번 공개는 분명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연습들을 겨냥한 반격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날뛰여도 우리의 움직임을 전혀 모르고 어찌 볼수는 더욱 없다.>}는식의 강렬한 배짱이다. 김정은최고사령관의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히 귀납한 구절이 없는데 필자가 볼 때 《강경자체를 물거품 만들기》라면 비슷하지 않을가 싶다. }라고 자기의 소감을 펴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적대세력의 무모한 핵전쟁망증과 군사적 도발책동들을 천변만화한 군사

적지역과 초강경의 자세로 여지없이 짓부서버리시는 우리 민족의 수호자이시다.

전쟁이란 무장력과 무장력의 대결이기 전에 두뇌와 두뇌의 대결, 담력과 배짱의 대결이라고 한다. 하기에 예로부터 머리수로 이긴 장군보다 지략과 담력을 이긴 장군을 첫 순가락에 꿔아왔다. 지략과 담력을 지닌 장군은 싸우지 않고서도 승리를 쟁취한다.

2012년 8월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은 또다시 공화국을

적반격전으로 넘어가 조국통



환호하는 군중에게 답례를 보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일대전으로 이어갈데 대한 그이의 단호한 명령은 오만하게 날뛰던 호전세력들의 기를 북침훈련을 시작하기도 전에 꺾어놓는 백두령장의 불호령이였고 승리의 선언이였다.

최근간 조선반도에 첨예하고 엄혹한 정세가 조성된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지만 그때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드리고 그 누구도 예측할수 없는 대단한 결단과 초강경대응조치들을 펼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도밑에

제압하고 나라와 민족의 안전을 굳건히 지키시였다.

세계의 언론들도 그이의 천변만화하는 군사적 지략과 대단한 배짱앞에 놀라움을 숨기지 않으며 『김정은 최고사령관은 조선의 국력과 군력, 민심에 기초하여 혼란한 묘기를 보여주는데 대내, 대외를 가르치 않고 분석하면 그 특징이 변화무쌍이다.』,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활동은 외부에 내놓는 고등수학문제이다. 그것도 난문제다.』라고 경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최대로 굳건히 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은 쉼없는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가신다. 지난 1월에도 그이께서는 찬바람이 몰아치는 한 겨울의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인민군부대들의 야간실전능력을 겸밀하시기 위해 항공총전병들의 야간훈련도 보아주시었고 얼마 전에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2620군부대와 제188군부대의 비행훈련도 몸소 지도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도밑에

철전에 진행된 당중앙군사위원회 회의에서는 전군에 최고사령관의 유일적령군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인민군대의 쌍용준비 완성과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둔튼히 다지면서 매우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지금 조선반도의 정세는 매우 긴장하다. 미국은 남조선에서 감행하고 있는 대규모의 북침합동군사연습에 핵추진잠수함 《콜럼부스》호와 제7함대함 《블루릿지》호를 비롯한 많은 침략함선들과 각종 최신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투입하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엄중히 위협하며 핵전쟁위기를 최대한으로 고조시키고 있다.

하지만 오늘 공화국의 전체 인민은 우리 민족이 낳은 또 한분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 계시기에, 그이를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불매의 강군이 있기에 원수들의 그 어떤 고립과 압살, 전쟁도발책동에도 끄떡없이 배심든히 강성국가건설에서 눈부신 비약과 혁력을 일으켜 나가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화국을 평도하신 나날은 그리 길지 않지만 온 나라 인민들과 세계 진보적인류는 그이이시야말로 담력과 배짱에 있어서나 군사적 예지와 지략에 있어서나 그 어느 명장도 따를수 없는 천하제일명장이심을 실지 체험으로 느끼었다.

적대세력들까지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출워인상에 위압감을 느끼며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민족이 얼마나 크나큰 행운을 지니였는가를 알수 있게한다.

천하제일명장이시며 우리 민족의 존엄과 강대성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공화국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며 온겨레는 반드시 이 땅에 통일되며 번영하는 강성국가를 일떠세울것이다.

본사기자 김강철

.....

얼마전 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인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개진중에 있는 중앙동물원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미국의 발광적인 침략전쟁연습 소동으로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검은 구름이 밀려드는 엄혹한 정세에 대처하여 군부대들을 련이어 시찰하시며 군력강화의 조치를 취해주신 그 걸음으로 중앙동물원을 찾으신 것이다.

이곳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도사진들중에서 특별히 눈길을 끈것은 맹수사를 찾으시여 환한 웃음을 지으시는 선군령장의 거룩한 모습이였다. 원수님의 뒤에 밝은 표정으로 서 있는 맹수사 작업반장 김순우녀성의 뒷의 은 얼굴도 보였다. 들은 데 의하면 그는 2012년 5월 중앙동물원을 찾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그곳 맹수사앞에서 뵈고 따뜻한 사랑의 말씀도 받은 너성이라고 한다.

현재 맹수사에는 조선법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에서 보내온 범들파 아프리카사자와 있다. 범파사자는 다 같은 맹수로서 사나운데서는 어느 하나 짐짓는데가 없는 육식동물들이다. 특히 조선법은 다른 아종들보다 크고 날쌔며 용맹스러운 것으로 유명하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을 봄가끼이 뵈온 김순우녀성은 범파사자의 동물학적 특성을 하나하나 물어주면서 오래도록 걸음을 떼지 못하시는 그이의 모습에서 17년전 중앙동물원을 찾으시었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모습을 다시 뵈웠다고 한다.

당시는 공화국이 고난의 행군을 하던 엄혹한 시기였다.

미국은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기고만장하여 날뛰며 《사회주의 종말》을 떠들었고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침략의 마수는 이 땅의 곳곳에 뻗쳐오고 있었다. 말그대로 또다시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느냐 아니면 자주적인 민의 존엄을 지키며 사느냐 하는 사생결단의 나날이였다.

그 엄혹한 나날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드리고 나라의 방선을 철벽으로 다져주신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주체 86(1997)년 6월 8일 중앙동물원을 찾으신 것이다. 이날 맹

게 웃으신다고 한다.

예로부터 호랑이는 지혜롭고 용감한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동물로 일리왔다. 선군장정을 이어가시던 그 뜻깊은 날에 장군님의 가슴속에 고백친것은 세계의 《유일초대국》이라 자처하는 미국의 고립압살책동을 선군의 보검으로 단호히 쳐갈김으로써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고 이 땅위에 통일강성국가를 기어이 일떠세우시려는 백두령장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가 아니였을까.

나라와 인민의 운명을 지켜 선군의 길을 걸고 또 걸으신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포악무도한 제국주의 강적인 미국과의 침략에

어 침략자들에게 나라를 통제로 빼앗았던 어제날의 악소국이 아니다. 이 세상 가장 큰 힘인 일심단결의 무기를 가지고 있고 자위의 든든한 억제력도 갖춘 행성의 당당한 강국이다. 그 선군조선의 진두에 적대세력들이 무서워 별별 떠는 천하제일장군 김정은원수님께서 서게신다.

그이의 영도를 받는 인민군대는 이미 지난해에 온갖 불의와 악의 대명사인 미국이 신성한 이 땅의 0.001mm라도 감히 침범한다면 침략의 아성을 송두리채 날려보내겠다는 추상같은 선언을 하였다.

침략과 살인이 체질화되어 해가 바뀐 지금에도 분별을 잊고 전쟁불통치를 들고 덤벼치는 미국에게 조선이 또다시 경고하는것이 있다. 그것은 공화국의 자위적인 티켓발사가 잘 말해주고 있다고 본다.

침략의 무리들이 달려든다면 빠도 추리지 못하게 불벼락을 안길 영웅조선의 단호한 기상인양 대기로 쭉쭉 가르며 날아가던 로켓드론.

그것은 정의의 위력한 불줄기였다. 악의 세력을 훤히 알아보며 전률케 하는 종오와 멸적의 불줄기였다.

그날 중앙동물원의 맹수사 앞에서 지으신 선군령장의 환하신 웃음은 침략에 떠들며 마지막 저승길을 걷는 제국주의 침략세력을 밟아래로 굽어보이며 세기를 이어오는 조미대결을 단호히 결산하고 선군조선의 최후승리를 안아오시려는 평장의 크나큰 확신과 락관의 웃음을 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조선은 힘이 없

뜻깊은 올해의 광명성절을 맞으며 프랑스 《그라쎄》 출판사 작가 얀 무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편지를 올리였다.

그는 편지에서 자기의 진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저는 조선을 두번째로 방문하는 프랑스공민으로서 조선의 모든 현실에 대하여 특히는 마시령스키장에 대하여 얼마나 감탄하게 되었는가를 당신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어 그는 《스키장의 웅장하고 훌륭한 환경속에 위치한 마시령호텔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은 세계의 감탄을 자아낼만 한 수준입니다. 저는 프랑스의 여러 스키장들에서 스キー를 타보았지만 마시령은 제

가본 스키장들중에서 가장 현대적인 스키장입니다. 자기 일에 열중하는 종업원들, 높은 수준의 식당, 아주 친절하게 조선이나 외국의 손님들을 맞이하는 봉사원들, 이 모든 것은 따뜻한 환대를 느낄수 있게 하여줍니다.

방은 넓으면서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꾸려져있는것으로 하여 손님들이 수립속환경에서 잡자는 것과 같은감을 줍니다. 정말 아득한 곳입니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언제나 안녕하시고 성과를 거두실 것을 바라며 최대의 경의를 표한다는 뜨거운 존경심이 담긴 인사로 편지의 끝을 맺었습니다.

저는 또한 당신께서 인민들을 사고와 불의의 정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에 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세부들을 통하여 자기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마음쓰시는 위대한領導자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편지를 드리게 된 것과 마시령스키장에서 스キー를 탈수 있게 된 것을 최대의 특혜로 간주합니다.

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벗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인민은 저에게 있어서 용감하고 의지가 강하며 자기领导자의 은혜에 대하여 고마움을 느낄줄 아는 인민의 상징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마시령스키장 같은 기념비적 건설과 자기 인민에 대한 보살핌은 영원한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시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이루어낸 것입니다.

저는 프랑스에 돌아가서 귀국의 발전된 기술과 공업의 면모, 인민들의 고상한 정신 상태에 대하여 사실그대로 소개할것입니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언제나 안녕하시고 성과를 거두실 것을 바라며 최대의 경의를 표한다는 뜨거운 존경심이 담긴 인사로 편지의 끝을 맺었습니다.

본사기자

수사를 찾으신 어버이장군님께서 한우리에서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범파사자의 대결을 보시게 되었다고 한다.

대결에서 총한방 쏘지 않으시고 지략으로 이기시고 담력으로 적들을 짓눌러버리시였다.

선군승리의 력사를 감회깊이 추억해주며 세월의 이끼를 머금고 서있는 중앙동물원의 맹수사에 오늘은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 이신 천출명장 김정은원수님께서 찾으신 것이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인들과 인민들은 이 모든 곤난을 의지로 이겨냈습니다.

의지는 기적을 낳게 합니다.

저는 또한 세계적인 스키장과 어깨를 겨루는 마시령스키장의 기술적인 측면에 감탄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수준에 맞는 스키주로들이 다 있으며 스키교원들과 설비관리원들, 스키임대봉사원들을 비롯한 현지종업원들은 다 실무가 높고 세심하면서도 친절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귀국을 방문하

는 프랑스사람으로서 저는 가장 최근에 건설된 이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는 첫 사람으로 된 것을 자랑으로, 영광으로 간주합니다.

저는 당시 편지를 드리게 된 것과 마시령스키장에서 스キー를 탈수 있게 된 것을 최대의 특혜로 간주합니다.

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벗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인민은 저에게 있어서 용감하고 의지가 강하며 자기领导자의 은혜에 대하여 고마움을 느낄줄 아는 인민의 상징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마시령스키장 같은 기념비적 건설과 자기 인민에 대한 보살핌은 영원한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시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언제나 안녕하시고 성과를 거두실 것을 바라며 최대의 경의를 표한다는 뜨거운 존경심이 담긴 인사로 편지의 끝을 맺었습니다.

본사기자

다시 찾으신 맹수사

대결에서 총한방 쏘지 않으시고 지략으로 이기시고 담력으로 적들을 짓눌러버리

통일은 애국이고 분렬은 배국이다

민족성원들에게 있어서 애국이란 가장 소중하고 신성한 사상감정이다. 민족적 뜻을 가진 사람들치고 누구나 애국에 살기를 바라지 때국노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조국이 해방된 때로부터 70년이 가까워오지만 오늘도 과거 일제통치에 협력한 행위가 친일때국행위, 민족반역행위로 혐오와 민족의 규탄을 받는 것도 이때문이다. 외세에게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겼던 수난의 그 세월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조국해방이 최대의 애국이었다면 오늘 최대의 애국은 조국통일이다. 분렬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통일을 떠난 참된 애국이란 있을 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통일은 곧 애국이고 조국분

들은 곧 매국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이 말씀에는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가 아니면 분렬을 꾀하는가 하는 것은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이라는 고귀한 진리가 담겨져 있다.

조국통일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실현하고 빛내이는 길이다. 외세에 의하여 7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은 우리 겨레에게 혜아

될수 없는 불행과 고통, 피해를 가져다주고 있다. 우리 겨레는 외세가 강요한 민족분렬로 하여 한 차례의 참혹한 전쟁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분렬은 조선반도에서 대결과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항시적인 요인으로 되고 있다.

나라의 분렬로 하여 인적, 물적 자원이 헤이기 소모되고 동족 대결로 민족의 통일적 발전이 자체되고 있다.

반만년 오랜 세월 한피줄을 이으며 살아온 우리 겨레가 북파 남으로 갈라서 서로 생사여부조차 모르며 살아오고 있는 것도 참을수 없는 고통이며 비극이 아닐수 없다.

민족의 통일원을 헤아리시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어버이 수령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연설에서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이 헤어되었던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통해서도 우리 겨레는 분렬의 참혹한 고통과 통일의 절박성을 뼈저리게 절감하였다.

다음에는 민족분렬 70년이 되는 해이다. 민족분렬의 이 비극을 이제 더 이상 지속시킬수는 없다.

조선민족은 하나로 합쳐져야 살고 둘이 되면 살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와 같다.

우리 나라는 통일을 이루면 존엄있는 통일강국으로 위용떨치고 민족번영의 찬란한 새시대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조국통일이야말로 우리 겨레의 최대의 애국사업이다. 반면에 대

결과 분렬을 추구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 못할 애국행위로 된다.

지금 겨레의 통일열기는 날로 높아가고 뜨거워지고 있다. 누구도 우리 민족의 이 거센 통일지향과 통일대진군을 가로막을수 없다.

력사적인 조국통일 3대원칙과 북남공동선언들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하루빨리 이루어려는 것은 공화국의 확고부동한 원칙이고 이지이다.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공화국의 애국애족의 조치들은 지금 북파 남, 해외의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지찬동을 받고 있다.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는 오늘의 시대적환경에서 일신의 애국과 부귀민을 생각하면서 분렬의 미국, 겨레의 통일운동을 외면하는 사람은 조선민족의 한성원이라고 말할수 없다.

온 겨레는 민족운명개척의 참된 길을 밝혀주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말씀에 담겨진 고귀한 진리를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이루하기 위한 정의의 애국투쟁에 한 사람같이 멀쳐나서야 할 것이다.

김철웅

그는 《현(정부)로선(대박)》이니 수사를 랑발 함께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10.4선언과 경제교류를 실천해야 평화도 찾아온다.》고 강조했다.

한편 10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열리는 《평화통일 월요기도회》에는 남조선의 여러 기관과 단체,

《세계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협의회》 등도 참여

할 예정이라고 한다.

본사기자

최근 남조선에서 정보원이 조작한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의 내막이 드러나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 사회 각계의 항의와 규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난해 초 정보원은 서울시청에서 일하던 한 인물을 북에 정보를 넘겨주었다는 혐의로 구속수사하였으며 검찰은 이를 넘겨받아 재판에 회부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이다.

남조선의 《련합뉴스》, 《CBS》, 《KBS》 방송을 비롯한 언론들은 이에 대해 보도하였으며 사실은 전해지자마자 커다란 물의를 일으켰다.

당신은 민주당은 즉시 성

해당 나라에 조작한 결과 그것이 모두 위조된 것이라는 것

이 밝혀졌다.

남조선의 《련합뉴스》,

《CBS》, 《KBS》 방송을

비롯한 언론들은 이에 대해

보도하였으며 사실은 전해지자마자 커다란 물의를 일으켰다.

당신은 민주당은 즉시 성

그런데 재판에서는 정보원과 검찰측이 제시한 증거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하여 피소자의 간첩혐의를 부정하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이에 비해맞은 검찰은 지난 해 11월 정보원으로부터 혐의자가 북에 드나들었다는 제3국의 《출입경기록》 문서 3건을 증거로 재판에 제시했다.

혐의자의 변호사측은 이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문서 확인을 요구하였으며

본사기자

명을 발표하여 《검찰에 위조문건을 넘긴 정보원과 외교부, 법원에 위조문건을 제출한 검찰관계자들에 대한 실체적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특검 실시를 강하게 요구해나섰다.

남조선의 인터넷들은 《조작공화국》, 《내란음모사건도 가짜》, 《백자나속을 증거조작》이라는 비난의 글들이 런던에 올랐으며 도처에서 벌어진 초불집회에서는 《정보원을 해체하

라.》, 《남재준을 파면시키라.》는 분노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듯이 사건의 진상은 갈수록 드러나고 있다.

남조선의 《련합뉴스》는 지난 3월 4일 검찰조사를 받은 한 남자가 로임 600만원과 문서위조의 대가로 1000만

라.》, 《남재준을 파면시키라.》는 분노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듯이 사건의 진상은 갈수

록 드러나고 있다.

남조선의 《련합뉴스》 방송은

지난 3월 4일 검찰조사를 받은 한 남자가 로임 600만원

과 문서위조의 대가로 1000만

원을 정보원으로부터 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쓰고

자살을 시도한 사실을 보도

하였다. 이것은 그가 정보원으로부터 고정적으로 돈을

받아오면서 활동했고 결국

정보원이 증거문서들을 위

조하였을 가능성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방송은 전

하였다.

한편 남조선의 《한국일보》는 간첩혐의자의 너동생이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오빠가 정보원의 조사와

정에 구타와 협박 등 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사실과

협의자가 북에서 찍은 것이라며 정보원이 제출한 사진들 역시 제3국에서 촬영한 것이라는 사실도 보도하였다.

지금 남조선의 언론들은

간첩사건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데 보도원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국정원》이라는 글씨가 지워진 혼적이

발견 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당했다.》고 폭로한 사실과

협의자가 북에서 찍은 것이라며 정보원이 제출한 사진들 역시 제3국에서 촬영한 것이라는 사실도 보도하였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해

치고 파쑈와 모략으로 사회

의 민주화와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는 정보원을 해체하

는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의 요구는 너무도 정당

하였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해

치고 파쑈와 모략으로 사회

의 민주화와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는 정보원을 해체하

는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의

요구는 너무도 정당

하였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해

치고 파쑈와 모략으로 사회

의 민주화와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는 정보원을 해체하

는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의

요구는 너무도 정당

하였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해

치고 파쑈와 모략으로 사회

의 민주화와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는 정보원을 해체하

는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의

요구는 너무도 정당

하였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해

치고 파쑈와 모략으로 사회

의 민주화와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는 정보원을 해체하

는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의

요구는 너무도 정당

하였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해

치고 파쑈와 모략으로 사회

의 민주화와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는 정보원을 해체하

는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의

요구는 너무도 정당

하였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해

치고 파쑈와 모략으로 사회

의 민주화와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는 정보원을 해체하

는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의

요구는 너무도 정당

하였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해

치고 파쑈와 모략으로 사회

의 민주화와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는 정보원을 해체하

는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의

요구는 너무도 정당

하였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해

치고 파쑈와 모략으로 사회

의 민주화와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는 정보원을 해체하

는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의

요구는 너무도 정당

하였다.

미국은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지금 미국의 반공화국적 대시정책이 최절정에 달하고 있다.

남조선의 전지역에서 대규모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벌광적으로 벌려놓고 북침전쟁의 불구름을 시시각각 물어오고 있는가 하면 자주와 정의의 나라인 공화국을 『폐쇄적인 나라』, 『악의 나라』라고 헐뜯으며 모략적인 반공화국 『인권』 소동도 악랄하게 벌리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대조선적 대시정책은 어제오늘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공화국이 창건된 첫날부터 오늘까지 60여년 간이나 지속되고 있다.

트루먼으로부터 오바마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대통령은 십여번이나 비판되었어도 미국의 대조선적 대시정책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가장 침략한 조미대결은 미국의 대조선적 대시정책이 초래한 것이다.

미국은 자주적인 공화국을 기어이 압살하기 위해 북침전쟁의 불도 지르고 경제제재와 봉쇄의 그물도 쳐왔으며 핵무기로도 위협하고 반공화국 『인권』 소동에도 깨달리고 공화국을 내부로부터 외해봉파시키기 위한 파괴와 모략, 사상문화적 침투책동 등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써왔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허사였다. 매번 패배의 쓰디

시간은 누구편에 있는가

쓰디쓴 참패만을 거듭하던 나머지 그 책임을 지고 제34대 미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고 말았다.

트루먼의 뒤를 이어 대통령의 감투를 쓴 아이젠하워는 『영예로운 전진』을 떠들며 수많은 무력을 동원하여 모험적인 『신공세』 도강행 하였으나 인민군대의 드센 반격을 받고 종당에는 정전협정이라는 수치스러운 항복문서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안되었다.

전후에도 미국은 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위반하며 침략군대를 남조선에 계속 주둔시키고 1 000여개의 핵무기까지 끌어들이며 힘으로 공화국을 어제보려 하였으나 뜻을 이룰 수 없었다.

1968년 당시 미국대통령이던 존슨은 무장간첩선 『푸

에블로』 호가 공화국의 영해깊이 기여들어 정탐활동을 감행하다 조선인민군 해군에 나포되자 『군사적보복조치』를 떠들면서 항공모함을 비롯한 수많은 유태공군 무력을 공화국의 연해에 펼쳐놓고 위협해나섰지만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할 것이라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입장과 위력 앞에 굽복하고 사죄문을 바

로 걸고들며 혼선제타격명단에도 올려놓았었다. 『반테로』의 미명하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치고 다온번 공격대상은 북조선이라며 전쟁소동에 매달렸으나 공화국을 어제보지도 못하고 허무한 나날을 보내다가 권력의 자리를 내놓아야 했다.

오바마행정부는 또 어떤 한가.

그 무슨 『기다리는 전

치지 않으면 안되었다.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이전 쏘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나라들이 붕괴되었을 때에 당시 부위 1세 정권은 하늘이 준 기회라고 떠들면서 『3, 3, 3봉파설』을 내돌리고 공화국에 압살의 총공세를 가하였지만 헛된 망상을 이루 할 수 없었다.

『핵의혹』을 떠들며 위험천만한 북침작전계획을 공개하고 비밀리에 핵폭탄두 하연습도 벌린 클린턴 행정부도 결국에는 조미대화의 마당에 나오고 공화국의 최고령도자께 대통령의 담보시 한까지 보내오지 않으면 안되었다.

지금 미국은 『핵문제』나 『인권문제』니 하며 공화국을 어제보려고 하지만 얻을 것인 한나도 없다.

공화국의 핵은 무엇과 흥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보유한 자주적인 억제력이다.

시간은 누구편에 있는가

조미대결에서 최후승리를 이루 할 것은 공화국이다.

시간은 자위의 핵 억제력을 들어 티 조선의 편에 있다.

미국의 갖은 재재와 봉쇄 속에서도 공화국은 인공지구 위성을 100% 자체의 힘으로 만들면서 쇄울리고 강성국가 건설에서 날마다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 있다. 비약의 통마는 선군조선의 하늘을 기세차게 날고 있다.

공화국의 정치체제는 조금도 혼들림 없고 영구불멸하다.

얼마전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평도자와 인민주권을 받드는 군대와 인민의 신뢰와 혼연一体가 얼마나 확고부동하고 위력한가를 온 세상에 남김 없이 보여주었다.

세월이 흘러도 공화국은 영원히 자주의 성새로 존엄과 위력을 떨칠 것이다.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안팎으로 궁지에 몰린 것은 미국이다.

경제위기, 침략과 전횡에 대한 세계적인 규탄과 배격, 끝을 모르고 추락하는 『초대국』의 위상...

세계는 조미대화의 역사에서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되는가를 뚜렷히 보게 될 것이다.

시간은 공화국의 편에 있고 정의도 공화국의 편에 있다.

본사기자 배영일

도 가려보지 못하고 마치도 『인권재판관』이나 되는듯이 그 더러운 일로 인민의 참세상인 공화국을 헐뜯고 있으니 정말 삶은 소 웃다가 미터질 노릇이다.

평양시 서성구역 석봉동 서광재

우리 학생들의 주역도 불光彩

쥐고 달려나가 전쟁 원인자들을 모조리 요정내고 싶은 심정이다.

나의 심정이 이러할진대 최전연초소에 나가있는 우리 형님의 마음이야 오죽겠는가.

그런데도 우리보고 『도발』이나 『자제』니 한나니 벤멘스러운 승냥이들이다.

세상의 정의는 미국이 아니라 12년제 무료 교육의 혜택 아래 배움의 글자리 더욱 향상하게 울리는 우리 조선에 있다.

승냥이미제야, 함부로 날뛰지 말라.

평양성평고급중학교 학생 류광호

편집증환자 미국의 운명은 뻔하다

허물고 우리 민족 모두와 강토를 통해 세계를 점령해나가는 가장 포악한 정체이다.

원래 치열에 맞지 않는 허망한 생각을 망상이라고 하며 이런 당상을 계속 고집하는 것을 정신의 학에서는 편집증이라고 한다.

미국의 대조선적 대시정책은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우리 공화국을 먹어보겠다

는 대조선적 대시정책이 애말로 물속에 비낀 달을 건져보려는 것과 같은 망상이며 그것을 계속 추구하는 미국은 편집증에 걸린 환자라고 말할 수 있다.

침략전 『서민』 호의 침입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나라를 먹어보려는 미국의 망상은 백수십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오래동안 우리를 어제보려고 제재와 고립봉쇄, 전쟁 도발과 핵 위협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그때마다 세계 면전에서 개묘망신만 당하였다.

망상을 너무 고집하다 보면 나중에는 정신 분열증을 일으키기 마련이다.

정신 분열증은 내면의 욕망과 현실을 불일치할 때 발생한다.

미국은 우리 나라를 두고 『악의 나라』, 『사악한 곳』이라고 헐뜯다 못해 『탈북자』 인간 쓰레기들을 『영웅』으로 칭찬하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를 먹어보려는 아메리카 키우기들의 욕망과 날로 승승장구하는 공화국의 현실간의 불일치가 넓은 히스테리적 정신 분열증 증상이다.

정신병자의 운명은 언제나 비극적이다. 미국이 대조선적 대시정책이라는 어리석은 망상을 계속 고집하고 그로부터 차례지는 것은 비참한 운명뿐이다.

이러한 기민국, 광대국을 펼쳐놓고 있는 미국의

도리대로 새로운 주가 늘어 날 때마다 국가에 별을 한개씩 더 침가하기로 하였다.

1819년 폴로리다를 강탈하여 메히코안 지역까지 레프토를 확장한 미국은 1845년에 레사스를, 1849년에는 오레곤지방을 그리고 1848년에는 메히코에 대한 침략 전쟁을 벌여 캘리포니아, 네바다, 유타, 아리조나 등 여러 지역에 세운다.

미국식인종들은 『독립』

후 8년 만에 미씨씨피강동쪽의 광대한 지역을 강점하고 레프토를 2배 이상 넓혀졌다.

1803년 미국 침략자들은 인디안들이 먼 옛날부터 많이 살고 있었던 넓고 넓은 루이지애나 지역을 빼앗았었다.

그 후 미국은 록키산줄기에 까지 이르는 미씨씨피강서쪽 지역도 저들의 손아귀에 넣어 놓았고 1800년대 초에는 본토로 부터 3 800km 떨어진 하와이였다.

리토아나에 재미를 본 미국은 1818년 국회에서 침략

보란듯이

선군조선의 불쾌의 기상 떨치며

대지를 박차고 날아올랐다

무적의 위용 안고 불붙는 로케트들

최상의 수준 파시하였다

얼마나 궁지 넘치는가

우리의 힘, 우리 기술로 쏴올린

다종다형의 첨단 로케트들

천하제일 강국 일세 우려는 우리 인민에게

필승의 신심 안겨주었거니

허나 꼬리에 불달린 승냥이 날뛰는

자위적인 우리의 로케트 발사를 두고

『도발』이나 『위협』이다

미친 듯이 고아대며 걸고드는 미제

흔풀이 나긴 났구나

남의 땅에 와서 침략훈련 하면서도

『방어적』 훈련이라 얼빠진 소리 하더니

제 땅, 제 영해에서 진행한

우리의 자위적 훈련

저들에 대한 『위협』이라 망발을 푸쳐

내니

이것이 파연 『강대국』이라 자치하는

어부지리를 염으려는 모략

최근 미국이 『북핵 위협』

을 요란스레 떠들며 공화국을

고립 압살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날뛰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은

세상에서 처음으로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였고 그것으로

로 인류에게 핵 참화를 끌어

온 유일한 나라이다.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핵 무기를 보유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행하는

침략전쟁을 도발하려는

저들의 범죄적 기도를

휘두르며 지난 세기에도 이

어오늘까지 공화국에 대

한 끊임없는 핵 위협을 가해

오고 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미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조선인민과

세계인류의 한결 같은

반대를 조장하여 북남 관계 개선을 가로막으려는 술책의

산물이다.

미국은 북남 사이의 대결에

서 부지지려 얻으려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

고 저들의 무기도 많이 팔아

먹으며 군사적 배책 동을 강

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핵 문제』를 떠

들며 북남 사이의 대결을 조

장하고 조선반도에서의 영구

분열을 추구할 수록 우리 민족의 반미 감정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본사기자 서희



미국의 반공화국 대결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

로 병합하였다.

미국 성조기의 50개의 별은

바로 이렇게 생겨난 것이다.

그 후 미국은 에스파이나와의

전쟁 끝에 태평양 지역의 팔도

수 기

일심단결된 내 조국의 참모습을 보았다 (1)

나는 이번 조국방문의 날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에 참가하는 행운을 지니었다. 이는 내 일생에서 가장 소중하면서도 영원한 기념으로 된다.

공화국의 선거는 실로

특이하고 희한한 선거풍경

내가 조국에 도착한 것은 선거를 며칠 앞둔 날이었다.

해외에서 조국의 선거에 대한 보도를 너무도 많이 들었던지라 무엇보다 그에 마음 끊렸다.

그런데 조국의 선거분위기는 내가 생각하던 것과는 너무도 판이하였다.

우선 선거경쟁 같은 것은 어디에도 없었다. 선거선전 자체가 사회적 화목을 도모하는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TV에서는 선거판련 노래들이 울려나오고 신문에는 선거참가를 독려하는 기사들이 실리고 있었다. 조국인민들을 만나보아도 모두가 공화국의 공민된 국지와 자부심을 갖고 노력적 성과로 선거를 뜻깊게 맞이하려는 애국의 일념뿐이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본 적도 있고 유럽의 의회 선거도 목격했던 나로서는 실로 예상밖이었다.

언제인가 유럽 신문에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다.

…선거철이 다가올 때면 (지옥의 계절) 을 맞이하는 느낌이다.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미쳐날뛰는 정상

세상에 다시 없을 희한한 선거였다.

세계를 놀라게 한 경이적인 선거에서 위대한 내 조국의 위상과 참모습을 다시금 짚어보았다.

조국방문소감으로 적어본다.

살풀경이 펼쳐지는 것이 상례로 되고 있다.

하지만 조국에서는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아도 돈을 내고도 볼 수 없는 장관이었다.

유권자들의 태도 또한 진지하고 정중하였다. 질서정연하게 차례를 기다리다가 받아든 선거표를 애국의 종교로 여기며 찬성의 한표를 바치는 조국의 유권자들, 권력이나 금력에 따라 아무렇게나 선거표를 던져버리면 그만인 서방사회의 유권자들과는 너무도 대조적이었다.

선거장을 온통 명절 분위기였다. 후보자들에게 찬성 투표 할 열의로 가슴 불태우며 선거날을 명절처럼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유권자들이 아니라 나라를 반드시 기동, 주인으로서의 궁지의 발현으로 여겨졌다. 가장 고마운 정권, 세상으로의 제도에 대



찬성의 한표를 바치고 흥겨운 춤판을 펼친 선거자들

한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의 표출이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 할 말이 없었다.

언제인가 조국을 방문했던 한 해외동포가 조국인민들의 손에 쥐어진 선거표는 자본주의 사회와 같이 찬반을 표하는 『알림문』이 아니라 굳건한 일심단결의 성세를 쌓는 『성돌』이라고 한적에 있는데 정말 옳은 말이라 고 생각한다.

선거장에 펼쳐진 황홀경 하나만으로도 내 조국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화목한 사회라고 소리높이 자랑할 수 있는 확신이 들게 했다.

이번에 주조 나이제리아, 몽골, 영국, 인도네시아 대사관 성원들과 중국, 노르웨이, 스웨덴, 이탈리아 등 공화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빈들이 평양시내의 여러 선거장을 참관하고 대의원 후보자들도 만나보았다고 한다.

그들이 흥겨운 춤판이 벌어진 선거장의 분위기와 감동적이라고 하면서 명절 분위기에 휩싸여 있는 선거장과 기쁨에 넘친 선거자들의 모습에 한결같이 감탄을 표시한 것은 너무도 응당한 것이다.

그들도 나처럼 공화국에서와 같은 독특한 선거는 처음 보았을 것이다.

참으로 선거장은 평범하여도 거기에 펼쳐진 희한한 풍경은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여 나라도 위대하고 인민도 위대한 공화국의 참모습에 대한 또 하나의 생생한 증명장이었다.

『우리』 와 『나』

제44호 영 제 선거구 당선자인 문강순, 김정숙평양방직 공장 직속으로 일하는 그가 30대 초엽에 나라의 정사를 의논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되었다. 그는 공장에서 일을 할 때 수도의 한 부관에 일떠선 창전거리를 세우고는 차내 시설부터 미리에 훈서리가 내린 오늘까지 40년을 혁명 사적초소를 지켜온 사람이다. 말하자면 돈으로 대통령 감투를 산 것이다.

미국의 선거판이 얼마나 썩었으면 외국의 출판물들 까지 『미국에서 백악관으로 가는 길은 오직 부유한 자들에게만 열려져 있다.』고 비난조소하였겠는가.

그가 대통령 선거기간 자기에게 많은 돈을 써버린 자들을 대사로 임명하였는데 그렇게 임명된 대사들이 주재국에 대한 초보적인 상식도 모르고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된 질문에 어처구니없는 대답을 하여 웃음거리가 된 사실은 『나』를 위한 선거 결과가 낳은 응당한 거결이라고 볼수 있다.

『우리』 와 『나』 !

이것은 『우리』라는 부름 속에 조국과 인민을 위해 성실한 땀방울을 바쳐가는 애국자들이 인민의 대표로 선출되는 공화국의 사회주의와 오직 『나』 하나만의 영달파권세욕을 위해 광범한 대중을 짓밟고 등쳐먹는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의 판이한 두 현실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다.

본사기자 고영숙

모르고 받는 혜택이 더 많은 나라

매로 공화국인민들은 가슴 손을 얹고 물어보꾼 한다.

—나라에서 베풀어주는 고마운 시책과 사회적혜택을 다 알고있는가.

사실 알고 받는 혜택보다 모르고 받는 혜택이 더 많은 이 나라의 인민들이다.

국가로부터 받는 인민적 시책들 가운데서도 전반적 무료 교육제, 전반적 무상 치료제,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제, 정후양제, 영예군인 우대제 등 인민적 시책들은 공화국의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시책들이다. 이밖에 국가부단에 의한 살림집 건설과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교양, 세금제도의 완전한 폐지와 같은 수많은 사회적혜택들이 있다.

공화국에서는 누구나 이러한 사회적혜택들을 법적으로 보장받고있다. 2012년에 진행된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법령 『전반적 12년제의 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가 발포되었다.

이것은 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중등 일반 교육을 새로운 단계에 옮겨서는 물론 고등 육성사업에 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한 뜻깊

은 사변이다.

이를 두고 많은 나라의 출판물들은 조선에서의 전반적 12년제의 무교육의 실시는 인공지구 위성체작 및 발사국으로서 CNC 기술과 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자체의 튼튼한 자립적 민족경제에 토대하여 강성국가를 건설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력을 보여주는 뚜렷한 실례로 된다고 평하였다.

공화국에서 국가적, 사회적 부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회보험제와 사회보장제에 대한 혜택 역시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되고 있다. 사회보험제에 대한 혜택 중에는 로동자, 사무원들이 병 또는 부상, 가족의 병간호 등을 통해 일을 하지 못한 경우에 근속으로 동년한에 따라 해당한 생활비를 주는 일시적 보조금제도, 산전산후보조금제도 등이 있다.

청소년 학생들과 근로자들의 담사 및 암영, 정후양에 필요한 비용들을 국가사회보협회에 산에 지원해 주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금강산, 묘향산을 비롯한 명산들과 경치 아름다운 끝들에 휴양소들이 설립되어 휴양생들이 등산, 유회오락, 체육경기 등 다채로운 활동으로 문화적이며 유쾌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공화국인민들은 생활의 순간마다 알고 받는 혜택보다 모르고 받는 혜택이 더 많은 고마운 제도에서 사는 궁지와 행복감을 가슴뜨겁게 절감하고 있다.

우리의 향기가 넘치는 『은방울』 껌도 있고 어린이들이

최근 공화국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된 질좋고 다양한 많은 상품들이 인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평양제 1백화점은 국내산 경공업체 품질 전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얼마 전 기자는 평양제 1백화점 김미영 상장부지배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평양제 1백화점에서 질좋은 국내산 상품들을 인민들에게 팔아주고 있다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김미영: 우리 백화점에서는 우리의 힘과 기술, 원료로 만든 수천종의 수백만 점에 달하는 국내산 상품들을 인민들에게 팔아주고 있다.

우리 백화점의 1층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눈에 띄우는 대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양과 장식이 각각인 『쿄스모스』 머리번 침매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백화점의 충종마다에는 신의주화장품 공장과 평양화장품공장에서 생산한 『봉향기』이다.

기자: 국내산 상품들에 대한 손님들의 인기는 어떤가?

김미영: 누구나 좋아하고 있다. 우리 백화점에서 팔아주고 있는 봉성빠다와 치즈를 비롯한 갖가지 첫가공제품들과 선홍식료공장에서 만든 당파류, 뺨류들은 너성들에 대한 혜택이다.

기자: 인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지금

기자: 『은방울』 껌도 있고 어린이들이 자주 사기장을 찾고 있다.

김미영: 그렇다. 인민들의 행복을 위해 어느 하루도 마음쓰지 않은 적이 없는 우리 장군님이 있다.

어버이 장군님께서 나라가 어려움을 겪는 속에서도 귀한 자금들을 아낌없이 들여

인민생활과 관련한 크고 작은 공장들을 하나하나 개진하도록 하시고 인민들이 받아들여 기뻐할 제품 한 가지, 한 가지를 위하여 쉬임없는 현

제작된다.

기자: 인민들의 기쁨이 커갈수록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온갖 고생과 심혈을 바쳐온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봉향기』를 만드는 당파류, 뺨류들은 너성들에 대한 혜택이다.

기자: 인민들의 기쁨이 커갈수록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온갖 고생과 심혈을 바쳐온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봉향기』를 만드는 당파류, 뺨류들은 너성들에 대한 혜택이다.

기자: 인민들의 기쁨이 커갈수록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온갖 고생과 심혈을 바쳐온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봉향기』를 만드는 당파류, 뺨류들은 너성들에 대한 혜택이다.

기자: 인민들의 기쁨이 커갈수록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온갖 고생과 심혈을 바쳐온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봉향기』를 만드는 당파류, 뺨류들은 너성들에 대한 혜택이다.

기자: 인민들의 기쁨이 커갈수록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온갖 고생과 심혈을 바쳐온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봉향기』를 만드는 당파류, 뺨류들은 너성들에 대한 혜택이다.

기자: 인민들의 기쁨이 커갈수록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온갖 고생과 심혈을 바쳐온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봉향기』를 만드는 당파류, 뺨류들은 너성들에 대한 혜택이다.

기자: 인민들의 기쁨이 커갈수록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온갖 고생과 심혈을 바쳐온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봉향기』를 만드는 당파류, 뺨류들은 너성들에 대한 혜택이다.

기자: 인민들의 기쁨이 커갈수록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온갖 고생과 심혈을 바쳐온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봉향기』를 만드는 당파류, 뺨류들은 너성들에 대한 혜택이다.

기자: 인민들의 기쁨이 커갈수록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온갖 고생과 심혈을 바쳐온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봉향기』를 만드는 당파류, 뺨류들은 너성들에 대한 혜택이다.

기자: 인민들의 기쁨이 커갈수록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온갖 고생과 심혈을 바쳐온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봉향기』를 만드는 당파류, 뺨류들은 너성들에 대한 혜택이다.

기자: 인민들의 기쁨이 커갈수록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온갖 고생과 심혈을 바쳐온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봉향기』를 만드는 당파류, 뺨류들은 너성들에 대한 혜택이다.

기자: 인민들의 기쁨이 커갈수록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온갖 고생과 심혈을 바쳐온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봉향기』를 만드는 당파류, 뺨류들은 너성들에 대한 혜택이다.

기자: 인민들의 기쁨이 커갈수록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온갖 고생과 심혈을 바쳐온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봉향기』를 만드는 당파류, 뺨류들은 너성들에 대한 혜택이다.

기자: 인민들의 기쁨이 커갈수록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온갖 고생과 심혈을 바쳐온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봉향기』를 만드는 당파류, 뺨류들은 너성들에 대한 혜택이다.

기자: 인민들의 기쁨이 커갈수록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온갖 고생과 심혈을 바쳐온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봉향기』를 만드는 당파류, 뺨류들은 너성들에 대한 혜택이다.

기자: 인민들의 기쁨이 커갈수록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온갖 고생과 심혈을 바쳐온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봉향기』를 만드는 당파류, 뺨류들은 너성들에 대한 혜택이다.

기자: 인민들의 기쁨이 커갈수록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온갖 고생과 심혈을 바쳐온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봉향기』를 만드는 당파류, 뺨류들은 너성들에 대한 혜택이다.

기자: 인민들의 기쁨이 커갈수록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온갖 고생과 심혈을 바쳐온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봉향기』를 만드는 당파류, 뺨류들은 너성들에 대한 혜택이다.

기자: 인민들의 기쁨이 커갈수록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온갖 고생과 심혈을 바쳐온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봉향기』를 만드는 당파류, 뺨류들은 너성들에 대한 혜택이다.

기자: 인민들의 기쁨이 커갈수록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온갖 고생과 심혈을 바쳐온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봉향기』를 만드는 당파류, 뺨류들은 너성들에 대한 혜택이다.

기자: 인민들의 기쁨이 커갈수록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온갖 고생과 심혈을 바쳐온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봉향기』를 만드는 당파류, 뺨류들은 너성들에 대한 혜택이다.

기자: 인민들의 기쁨이 커갈수록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온갖 고생과 심혈을 바쳐온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봉향기』를 만드는 당파류, 뺨류들은 너성들에 대한 혜택이다.

기자: 인민들의 기쁨이 커갈수록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온갖 고생과 심혈을 바쳐온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봉향기』를 만드는 당파류, 뺨류들은 너성들에 대한 혜택이다.

기자: 인민들의 기쁨이 커갈수록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온갖 고생과 심혈을 바쳐온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봉향기』를 만드는 당파류, 뺨류들은 너성들에 대한 혜택이다.

기자: 인민들의 기쁨이 커갈수록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온갖 고생과 심혈을 바쳐온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봉향기』를 만드는 당파류, 뺨류들은 너성들에 대한 혜택이다.

딱-딱-
바둑판에 바둑
돌을 놓는 소리
만 간단없이 들
릴뿐... 주위는 사뭇 깊은 물
속에서처럼 고요했다. 모여
선 사람들이 어깨성을 쌌고
숨소리조차 죽인채 지켜보는
이곳에서는 어린선수들간의
열기띤 『바둑격전』이 한창
이고 있었다. 해마다 봄철을
계기로 열리는 제14차 평양
시 봄철어린이바둑경기인 것
이다.

여러가지 복잡한 정황속에
서 돌처리를 하면서 맵짠 공
격으로 순식간에 상대방을
수세에 몰아넣기도 하고 때
로는 능숙한 방어전술로 자

바둑명수후비들이 자란다

기의 돌을 살리면서 집을 만
들어나가는 경기과정은 볼수
록 흥미진진했다.

장기와 같은 다른 지능경기
들의 변화수와 대비할수 없으
리만큼 많은 변화수를 가지
고 있는데다가 심도 또한 매
우 깊어 『최고의 지적경기』
로 일러오는 바둑경기. 입학
하기 쉽고 진급하기도 어렵지
않지만 졸업(끝)은 없다고 하
는것이 바둑의 세계에서 어른
들도 힘들어하는 경기를 다양
한 수를 적용해가며 제법 능
숙하게 해나가는 이들을 보

느라면서 이제 겨우 5~7살밖에
안되는 어린이들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이다.

경기를 주최한 평양바둑원
의 윤용명원장은 개인전과 단체전,
Honshu Shogi Tournament에 참가한
경기에서 차수를 가지는 바둑경기.
교류교(1, 2학년)에서 온 우
수한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참가하였고 하면서 해마다
경기 참가자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보다 특징적인 것은
2연승을 기록하는 선수가 없
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린 선



조선의 여자마라손의 전도는 밝다

얼마전에 진행된 중국 대
북국제마라손경기대회에서
공화국선수들이 우수한 성
과를 거두었다.

지난 시기 국제마라손경기
들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여러 나라와 지역의 선수들
이 참가한 이번 경기대회에
공화국에서는 크게 알려지지
않은 2명의 신진선수들이 출
전하였다.

공화국선수들은 처음부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
다. 그것은 평양체육단의 김
지향선수가 19살로서 참가자
들 가운데서 나이가 제일 어
리기 때문이었다. 마라손경
기에 참가하는 선수의 나이는
최소한 20살은 되어야 한다.
그리고 20살도 안되는 김지향
선수가 105리를 깨달릴수 있겠
는가 하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밖
이었다.

경기는 비가 내리고 바람

이 세계 부는 속에서 진행되
었다. 공화국선수들은 출발
신호와 함께 시작부터 선두
에서 달렸다. 에티오피아선
수가 바싹 뒤를 따랐다. 그

는 조선선수들의 상태를 타
진하면서 앞서나갈 기회만을
노리었다.

그런데 30km지점에서 대
단하게 뛰여나가는 선수가
있었다. 김지향선수였다.

앞에는 넘어온 길보다 경사
가 더 급한 언덕길이 12.
195km나 있었다. 그러나 그
는 구간당 시간을 시작때보
다 2분씩 단축하며 빠른 속
도로 달리었다. 마지막구간
에서 이만한 시간을 단축하
며 달린다는 것은 모험이었
으나 그는 조금도 주춤거리
지 않고 결승선을 향해 기
운차게 달리였다. 하여 뒤
따르던 에티오피아선수를
수백m나 멀리 걸어는데도
를 끊었다. 구간당 종합평
균으로 105리를 깨달릴수 있
겠다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약들 가운데는 절대 안전한
것이 한가지도 없으며 지어
어떤 약들은 독성이 선것들
도 있다.

지난 세기 60년대에 여러

나라들에서 『탈리도미드사
건』이 발생하여 의학계에
큰 화제거리로 되었었다.

당시 임신부들이 진정
약으로 탈리도미드를 쓴 결
과 기형아(팔, 다리가 없는
기형)를 많이 낳았던 것이다.

『탈리도미드사건』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약을 합
리적으로 쓰는 것은 늙은이,
어린이 및 임신부들에게 있
어서 특별히 중요하다.

① 약을 많이 쓴다고 하
여 좋은 것은 아니다. 일부
질병들은 한가지 약으로만
나올수 있으므로 한번
에 여러 가지 약을 쓰지 말
아야 한다. 약을 여러 가지
많이 쓸 때, 약을 쓰는
기간이 길수록 독성작용
도 더 세진다. 약을 적게
쓰는 것이 불량반응을 적게
하는 열쇠이다. 그러므로
『약을 많이 쓸 수록 병이
빨리 낫는다.』는 잘못된
생각을 없애야 한다.

② 약을 망탕 쓰지 말아
야 한다. 약은 질병이 명확
하게 진단되고 약의 성질이
충분히 파악된 조건에서 써
야 한다. 병의 원인이 똑똑
하지 않은데 열이 있다고 하
여 열내림약, 황생제 등을
망탕 쓰게 되면 병의 상태
를 모호하게 하고 치료목적

을 달성할수 없으며 심지어
불량반응 또는 중독을 가져
오게 한다. 예로부터 『병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지만 약
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한 것도 바로 이런것을 넘두
에 둔 것이다.

③ 약을 합리적으로 배
합하여 써야 한다. 중한
만성질병과 늙은이들의
병을 치료할 때에는 어
려가지 약을 부득불 쓰
게 되는데 이때에도 약
의 물리화학적 합금기
가 생길수 있으므로 약을
합리적으로 배합하여 써
야 한다.

④ 의사의 처방대로 약
을 써야 한다. 처방에 지
적된 쓰는 양, 쓰는 시간
을 엄격히 지키며 환자
들이 제대로 쓰는 양
을 들이거나 줄이며 약을
끊는것과 같은 일이 없어
야 한다.

⑤ 약은 개별화의 원칙
을 지켜서 써야 한다. 약
을 쓸 때에는 환자의 나
이, 남녀별, 건강상태,
체질 등을 고려하여 결
정해야 하며 늙은이, 어
린이, 임신부, 간 및 통
팔기능장애에 있는 사람들에
게는 심중해야 한다. 또한
환자들에게 있을수 있는 약
물에 대한 파민반응을 철저
히 파악하고 그런 약을 피해
야 한다.

평양시 만경대구역 갈림길
종합진료소 의사 리영숙

를 장작을 한아름 안고 돌
아섰다.

『입자! 난 연안성으로 가
지 않겠네.』

불숙 황백치의 탁한 목청
이 결에서처럼 크게 들렸다.

이쁜은 저도모르게 신경이
도사리지며 불밝은 창가로
걸려갔다.

『안 간다는건 무슨 소리

민족의 자랑-평양민속공원을 찾아서

정통사례가족사비

고 그 바깥쪽에 묘실을 꾸린
내옹을 기록하고 안쪽에 제
자들의 승좌와 이름을 순서
대로 기록하였다. 앞뒤면의
비문과 테두리장식은 모두
오목하게 새겼는데 매우 섬
세하고 페치가 뚜렷하였다.

비몸의 괴대기에는 이 시
기 일반적인 통틀임이나 합
각식지붕 형식과는 달리 우
진 각지붕을 형상한 비머리를
얹었다. 지붕처마 밑에는 두
줄의 반침과 런꽃무늬를 새
겼고 앞면에는 웃부분

중심에 전자체로 시호를 받
은 대각국사비명이라는 제목
을 새기고 그 좌우에 봉황
새무늬와 보상화장을 무늬를
장식하였다. 이 유명한 무늬
는 화가 박련이 새긴 것으로
는 거북받침의 름을 형상
파 대조되어 잘 조화를 이루
고 있다. 비몸에는 세계에 자
랑할만한 목판조각술과 출
판인쇄술을 보여주는 『속장
경』 출판에 기여한 중의천
의 경력을 적은 비문이 새겨
져 있다. 뒷면에는 보상화장
를 무늬 장식을 네모나게 두르

고 있다. 비몸에는 세계에 자
랑할만한 목판조각술과 출
판인쇄술을 보여주는 『속장
경』 출판에 기여한 중의천
의 경력을 적은 비문이 새겨
져 있다. 뒷면에는 보상화장
를 무늬 장식을 네모나게 두르

고 있다. 비몸에는 세계에 자
랑할만한 목판조각술과 출
판인쇄술을 보여주는 『속장
경』 출판에 기여한 중의천
의 경력을 적은 비문이 새겨
져 있다. 뒷면에는 보상화장
를 무늬 장식을 네모나게 두르

고 있다. 비몸에는 세계에 자
랑할만한 목판조각술과 출
판인쇄술을 보여주는 『속장
경』 출판에 기여한 중의천
의 경력을 적은 비문이 새겨
져 있다. 뒷면에는 보상화장
를 무늬 장식을 네모나게 두르

고 있다. 비몸에는 세계에 자
랑할만한 목판조각술과 출
판인쇄술을 보여주는 『속장
경』 출판에 기여한 중의천
의 경력을 적은 비문이 새겨
져 있다. 뒷면에는 보상화장
를 무늬 장식을 네모나게 두르

고 있다. 비몸에는 세계에 자
랑할만한 목판조각술과 출
판인쇄술을 보여주는 『속장
경』 출판에 기여한 중의천
의 경력을 적은 비문이 새겨
져 있다. 뒷면에는 보상화장
를 무늬 장식을 네모나게 두르

고 있다. 비몸에는 세계에 자
랑할만한 목판조각술과 출
판인쇄술을 보여주는 『속장
경』 출판에 기여한 중의천
의 경력을 적은 비문이 새겨
져 있다. 뒷면에는 보상화장
를 무늬 장식을 네모나게 두르

고 있다. 비몸에는 세계에 자
랑할만한 목판조각술과 출
판인쇄술을 보여주는 『속장
경』 출판에 기여한 중의천
의 경력을 적은 비문이 새겨
져 있다. 뒷면에는 보상화장
를 무늬 장식을 네모나게 두르

고 있다. 비몸에는 세계에 자
랑할만한 목판조각술과 출
판인쇄술을 보여주는 『속장
경』 출판에 기여한 중의천
의 경력을 적은 비문이 새겨
져 있다. 뒷면에는 보상화장
를 무늬 장식을 네모나게 두르

고 있다. 비몸에는 세계에 자
랑할만한 목판조각술과 출
판인쇄술을 보여주는 『속장
경』 출판에 기여한 중의천
의 경력을 적은 비문이 새겨
져 있다. 뒷면에는 보상화장
를 무늬 장식을 네모나게 두르

고 있다. 비몸에는 세계에 자
랑할만한 목판조각술과 출
판인쇄술을 보여주는 『속장
경』 출판에 기여한 중의천
의 경력을 적은 비문이 새겨
져 있다. 뒷면에는 보상화장
를 무늬 장식을 네모나게 두르

고 있다. 비몸에는 세계에 자
랑할만한 목판조각술과 출
판인쇄술을 보여주는 『속장
경』 출판에 기여한 중의천
의 경력을 적은 비문이 새겨
져 있다. 뒷면에는 보상화장
를 무늬 장식을 네모나게 두르

고 있다. 비몸에는 세계에 자
랑할만한 목판조각술과 출
판인쇄술을 보여주는 『속장
경』 출판에 기여한 중의천
의 경력을 적은 비문이 새겨
져 있다. 뒷면에는 보상화장
를 무늬 장식을 네모나게 두르

고 있다. 비몸에는 세계에 자
랑할만한 목판조각술과 출
판인쇄술을 보여주는 『속장
경』 출판에 기여한 중의천
의 경력을 적은 비문이 새겨
져 있다. 뒷면에는 보상화장
를 무늬 장식을 네모나게 두르

고 있다. 비몸에는 세계에 자
랑할만한 목판조각술과 출
판인쇄술을 보여주는 『속장
경』 출판에 기여한 중의천
의 경력을 적은 비문이 새겨
져 있다. 뒷면에는 보상화장
를 무늬 장식을 네모나게 두르

고 있다. 비몸에는 세계에 자
랑할만한 목판조각술과 출
판인쇄술을 보여주는 『속장
경』 출판에 기여한 중의천
의 경력을 적은 비문이 새겨
져 있다. 뒷면에는 보상화장
를 무늬 장식을 네모나게 두르

고 있다. 비몸에는 세계에 자
랑할만한 목판조각술과 출
판인쇄술을 보여주는 『속장
경』 출판에 기여한 중의천
의 경력을 적은 비문이 새겨
져 있다. 뒷면에는 보상화장
를 무늬 장식을 네모나게 두르

고 있다. 비몸에는 세계에 자
랑할만한 목판조각술과 출
판인쇄술을 보여주는 『속장
경』 출판에 기여한 중의천
의 경력을 적은 비문이 새겨
져 있다. 뒷면에는 보상화장
를 무늬 장식을 네모나게 두르

고 있다. 비몸에는 세계에 자
랑할만한 목판조각술과 출
판인쇄술을 보여주는 『속장
경』 출판에 기여한 중의천
의 경력을 적은 비문이 새겨
져 있다. 뒷면에는 보상화장
를 무늬 장식을 네모나게 두르

고 있다. 비몸에는 세계에 자
랑할만한 목판조각술과 출
판인쇄술을 보여주는 『속장
경』 출판에 기여한 중의천
의 경력을 적은 비문이 새겨
져 있다. 뒷면에는 보상화장
를 무늬 장식을 네모나게 두르

고 있다. 비몸에는 세계에 자
랑할만한 목판조각술과 출
판인쇄술을 보여주는 『속장
경』 출판에 기여한 중의천
의 경력을 적은 비문이 새겨
져 있다. 뒷면에는 보상화장
를 무늬 장식을 네모나게 두르

고 있다. 비몸에는 세계에 자
랑할만한 목판조각술과 출
판인쇄술을 보여주는 『속장
경』 출판에 기여한 중의천
의 경력을 적은 비문이 새겨
져 있다. 뒷면에는 보상화장
를 무늬 장식을 네모나게 두르

고 있다. 비몸에는 세계에 자
랑할만한 목판조각술과 출
판인쇄술을 보여주는 『속장
경』 출판에 기여한 중의천
의 경력을 적은 비문이 새겨
져 있다. 뒷면에는 보상화장
를 무늬 장식을 네모나게 두르

고 있다. 비몸에는 세계에 자
랑할만한 목판조각술과 출
판인쇄술을 보여주는 『속장
경』 출판에 기여한 중의천
의 경력을 적은 비문이 새겨
져 있다. 뒷면에는 보상화장
를 무늬 장식을 네모나게 두르

고 있다. 비몸에는 세계에 자
랑할만한 목판조각술과 출
판인쇄술을 보여주는 『속장
경』 출판에 기여한 중의천
의 경력을 적은 비문이 새겨
져 있다. 뒷면에는 보상화장
를 무늬 장식을 네모나게 두르

고 있다. 비몸에는 세계에 자
랑할만한 목판조각술과 출
판인쇄술을 보여주는 『속장
경』 출판에 기여한 중의천
의 경력을 적은 비문이 새겨
져 있다. 뒷면에는 보상화장
를 무늬 장식을 네모나게 두르

고 있다. 비몸에는 세계에 자
랑할만한 목판조각술과 출
판인쇄술을 보여주는 『속장
경』 출판에 기여한 중의천
의 경력을 적은 비문이 새겨
져 있다. 뒷면에는 보상화장
를 무늬 장식을 네모나게 두르

고 있다. 비몸에는 세계에 자
랑할만한 목판조각술과 출
판인쇄술을 보여주는 『속장
경』 출판에 기여한 중의천
의 경력을 적은 비문이 새겨
져 있다. 뒷면에는 보상화장
를 무늬 장식을 네모나게 두르

고 있다. 비몸에는 세계에 자
랑할만한 목판조각술과 출
판인쇄술을 보여주는 『속장
경』 출판에 기여한 중의천
의 경력을 적은 비문이 새겨
져 있다. 뒷면에는 보상화장
를 무늬 장식을 네모나게 두르

고 있다. 비몸에는 세계에 자
랑할만한 목판조각술과 출
판인쇄술을 보여주는 『속장
경』 출판에 기여한 중의천
의 경력을 적은 비문이 새겨
져 있다. 뒷면에는 보상화장
를 무늬 장식을 네모나게 두르

고 있다